

어린이 책꽂이



▲퍼버리 루이스=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원작자인 앤 파인의 동화, 자타공인 퍼버리 루이스는 '도서관을 위한 후원금'을 모을 방법을 생각해다가 '조용히 해서 돈 벌기' 대작전을 계획한다. 퍼버리 루이스와 루이스가 조용히 하는 만큼 돈을 내겠다는 사람들의 즐거운 승부가 시작된다. (시공주니어·8000원)



▲명화로 풀어보는 세계사 수수께끼=고대 동굴 벽화에서부터 현대 화가들의 작품까지, 그림과 조각들에 숨어 있는 세계사의 비밀을 알려 준다. 그림을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그 시대 아이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시대를 뒤흔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풀이된다. (조선Books·1만3000원)



▲하얀 우산=제6회 건국대학교 창작동화상을 받은 김덕운씨의 창작동화다. 휠체어를 탄 아이와 키가 너무 큰 아이,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두 아이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두 아이의 값진 우정이 아름답게 피어나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전해져 온다. (문학과지식사·8000원)



▲꽃 할머니=한·중·일 작가들이 각각의 주제로 책을 만든 뒤 3국에서 동시에 출판하는 공동기획 평화그림책 시리즈의 첫 번째 책. 그림책 작가 권운덕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비인간적인 위안부의 실상을 고발했다. 할머니는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기억조차 잃은 채로 살아간다. (사계절·1만5000원)



▲음악, 세균이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세균들과 그에 맞서 싸우는 착한 항체 이야기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우리 몸이 외부의 세균을 물리치는 과정을 재미있는 동화로 풀어내, 어린이들로 하여금 청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깨끗하게 손 씻는 방법'도 알려준다. (아이즐북스·1만1000원)



▲처음 만나는 클래식=모차르트·바흐·스트라빈스키 같은 작곡가들과 그들이 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서양 악기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설명하는 클래식 음악 입문서다. 책 안에 달려 있는 시디(CD)에는 책에 등장하는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이 들어있다. (우리교육·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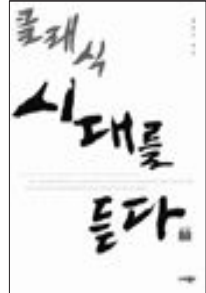
▲조지 할아버지의 6·25=6·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6·25의 역사를 알려주는 동화책. 미국에서 실제로 열리는 6·25 참전 용사들의 행사 '리버버 7·27'을 소재로 6·25 전쟁의 참상에 대해 들려준다. 미국 교포 3세인 영후가 할아버지를 만나 6·25전쟁의 역사에 대해 알아간다는 내용이다. (바우슬·8800원)

▲재미있는 돈의 역사=고대의 소금이나 보리에서부터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돈'(화폐)이라는 주제를 쉽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교양서이자 역사서이다. 인류 역사의 여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밀접하게 관련된 돈의 다양한 형태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 (두레아이들·1만1000원)

축구 칼럼니스트가 쓴 '음악과 시대정신'

클래식 시대를 듣다

정윤수 지음



문화 비평지 '계간 리뷰'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정윤수는 전방위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다. 아마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직함은 '축구 칼럼니스트'일 것이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그의 축구 관련 글은 선수와 기교, 축구 자체에 집중하는 다른 필자들과 확연히 구분됐다. 축구를 통해 그는 문화를 이야기했고, 시대를 이야기했다.

정윤수가 이번에 펴낸 '클래식 시대를 듣다' 역시 최근 쏟아지고 있는 클래식 관련 서적과는 확실한 차별점을 갖는 책이다. 그가 이 책을 쓴 관점은 하나다. '서양의 작곡가가 시공을 뛰어 넘어 21세기 우리 마음에 공명을 주는 것은 유려한 선을 때문만이 아니

라 그들의 삶과 음악 속에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역사가 있고, 그들이 시대를 끌어안았기 때문이다'는 출발선이다. 그는 현대에 함유되고 있는 클래식이 자칫 '세련된 교양'이나 '우아한 기품'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당대의 고뇌와 역사상'을 전면에 내세운 저자는 작곡가 개개인의 신상명세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과 열망과 슬픔과 희열과 전망을 훑었고, 클래식 뿐 아니라 당대의 정치·사상·문화·미술·건축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내려갔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퇴장 당한 축구 감독이 관중석에서 22명의 몸놀림을 내려다 보듯이.'

그래서 책이 다른 12명의 음악가 중 몇몇 작곡가의 경우는 정작 해당 작곡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많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다양한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 쓴 그의 글쓰기가 빛나는 책이기도 하다.

책은 바로크 거장이었던 300년 전의 비발디 시대 부터 시작해 고전과 낭만을 거쳐 운이상 등 21세기 음악가를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복원해 내고 있다.

영화 '체인질링'에서부터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저자는 '마귀 들린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온 세상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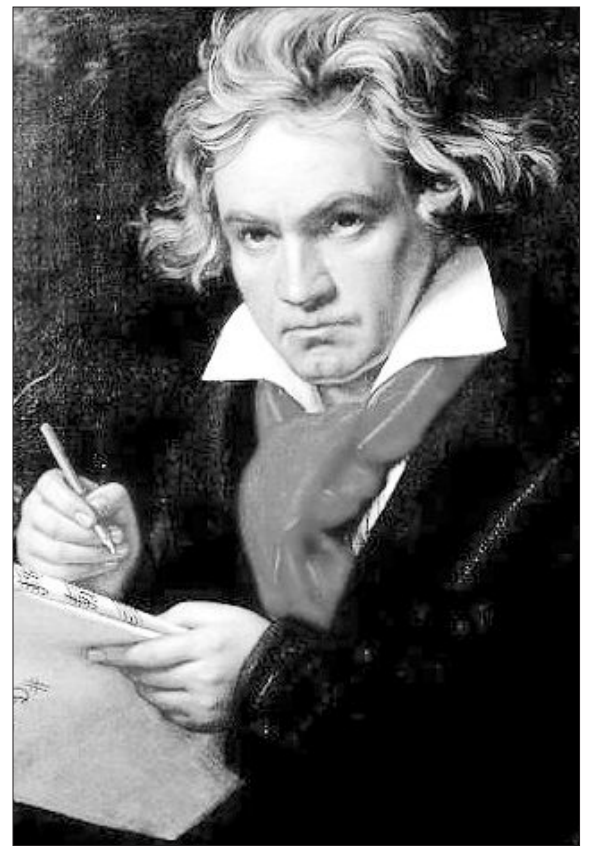
'신동'이라는 존재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게는 어떻게 '화려한 왕관'이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그건 오랜 관습을 뛰어넘고자 했던 계몽군주 시대였기에 가능했고, 근대 가족 문화의 주인공들이 '어린이'의 탄생을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준 기회였다고 말한다. '신동' 모차르트는 초기 시민사회의 열망이 응축된 문화적 아이콘이자, 중산층적 욕망의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세기말의 균열과 불안이 일태한' 구스타프 말러는 평생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힘들어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깨고 세기말의 병적인 징후를 음악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책은 그밖에 드뷔시·슈베르트·바그너·차이코프스키·브람스·바흐·시벨리우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저자는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각 작곡가들의 삶과 시대를 탄탄히 축조해냈다. 오르한 파묵의 '하얀상'에서 비발디의 이야기가 출발하듯, 영화 '타인의 삶',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의 양식', 최승호의 '대설주의보', 그리고 모네의 '생리자르 기차역'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또 다른 문화재현에 빠져들게 하는 길잡이다. (너머북스·2만6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뇌하는 베토벤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초상화. 1819년 요제프 카를 스틸러가 그렸다. (너머북스 제공)

1970년대 작품으로 만난 시대상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하중현 외 21명 지음



하중현·김구림·송수남·임옥상·안규철·구본창·이흥백·정연두·최우람씨 등 1970년대 이후 활동한 미술인 22명을 만나 작품과 시대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정리한 인터뷰집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가 나왔다.

지난해 한국 현대미술사를 시대적으로 정리하는 홍익대 대학원 수업내용을 전역백 홍익대 교수가 엮어 낸 것이다.

학생들의 인터뷰에 작가들은 진솔하게 답했다. 송수남 씨는 "수묵화는 정신상의 표현"이라며 "작가의 정신이 맑아야 작품 역시 맑게 보이는 법"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을 조각한 김영원 씨는 처음에 추상적인 조각을 하다 사실적 양식으로 바꿨다. 그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시대를 초월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진작가 구본창씨는 "고독하고 어두웠던 80년대 중반 시대 분위기가 자신의 작품에 큰 영향을 줬고 작품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한 학생들은 자신이 만난 미술가들의 특징을 뽑아내 이에 어울리는 별칭을 붙여 주었다. 전위적인 실험미술가 성능경씨는 '꿈꾸는 돈키호테'로, 민중미술작가 주재환 씨는 '유쾌한 세'라고 소개했다. 책장 중간 중간에는 미술가들의 작품 사진이 실렸고 약력도 함께 정리돼 있다. (공리·2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히말라야 사람들의 삶과 사랑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엄홍길 지음



"나마스테(Namaste)!~" 엄홍길 대장이 최근 에베레스트 등반 거점인 네팔 남쪽에 서 업시를 보냈다. 해발 4060m의 광보체 마을 휴먼스쿨 준공식에 가던 길에 부친 것이었다. 엄 대장은 "우리가 지은 것은 학교가 아니라 희망"이라고 썼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에 성공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진 그는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 희망의 산에 오르고 있다. '산은 오르며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되갚는 것'을 제2의 인생목표로 삼고 히말라야 오지의 교육, 의료,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히말라야가 자신을 살려 보낸 뜻을 헤아려 실천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함께 등반하다 추락사한 세프의 고향이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오지 산간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그 첫 사업이다. 엄 대장이 펴낸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에는 광보체에 학교를 짓게 된 사연과 1년여의 과정, 오지 사람들의 순박한 삶과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엄 대장은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나의 희망고도는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이 아닌 1m도 되지 않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작됐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산골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제2의 도전에 나선 그는 '나눔을 경영해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미음의 숲·1만3,000원)

김대성기자 who@kwangju.co.kr

20대를 위한 맞춤형 취업설계서

합격을 쏘라

변용범·최상희 지음



취업설계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변용범·최상희씨가 20대를 위한 맞춤형 취업설계 가이드북 '합격을 쏘라'를 펴냈다.

책은 "자기분석과 진로 분석 없이 스펙만 쌓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규정하고, 단계별 취업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의 강점은 자신의 잠재력과 취약점을 체크해 자신을 인

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북이라는 점이다. 저자들은 "취업의 성패는 취업설계를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파악한 후 목표 기업에 대해서도 성능 좋은 돋보기를 갖다 대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또 원하는 직장을 얻는 과정을 배우자를 찾는 결혼에 비유한다. "남 찾은 곳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막 들어갈 수 없지 않겠는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격연은 인생의 배우자를 찾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200쪽)이지만, 한 권으로 취업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부족함이 없다. 채용 절차별 준비절차와 취업 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활용법이 책 곳곳에 배껴다. '취업 성공사례를 따르라'는 기존의 칼럼식 취업준비서와 확실히 차별화했다. (넥서스BIZ·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 521-6024 (FAX) 521-6026

공장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 (1,500평)
- 건물 2,176㎡ (658평)
- 호이스트 5t, 10t (총고 9m)
- 매매가 22억 5천만

물류창고임대

하남공단 8번로

- 건물 1,510㎡ (475평)
- 임대가 평당 1만 7천원
- 총고높이 7m
- 현 대로변 위치 최고

금산공인중개사

T.081-5886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영천, 롯데마트 건너편, 삼정화재빌딩옆(4면 광도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벽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기/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유 허가 특 -마당에서 광주상행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입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월등 자연녹지 매매

- 면적 : 약 3,870㎡
- 단가 : 평당 200만원
- 위치 : 매월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도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함
- 지가 급등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이내가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 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던 실 망이 크듯 큰 기대를 걸고 이것 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 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 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레 서 큰놈을 보고도 자라보고 싶 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 듯이 흡사나 하고 이변에도 반신반의 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 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 으며 사용중시 불끈 일어섬터 매 시간 지속되니 꿈인지 생사인지 정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 을 느낀다. 장기부전 개선을 위 한 가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피부같은 촉감이

달팽이 모양같은 실라폰이 처음 보 면 주사 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 타나게 날개 펼쳐 나가고 있다. *가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희혼의 공, 파워마카100% 분말 보 대신하면 좋습니다.(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 구매시 핫나경서적이 없는 것은 유사제품입니다.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지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히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증 제1188호) (G-FLOW)

1577-4101
010-8952-4114, 010-8558-4114

농협 301-0036-8883-71 예금주:글로벌 핫나경 www.핫나경.kr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의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 고 너무 빠른... 분들의 "기"가 원할 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 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 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 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은 60% 대, 중, 소 10단계조절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머리카락이 굵어져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의사와 약사가 명예를 걸고 3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개발한 이 제품은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탈모 무모증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 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지요? 모근에 영양 공급이 바로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뿐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6가 11 전선영 (통신판매 NO. 10-5301호)

1588-4102
010-5296-4114, 010-8952-4114

농협 589-12-034626 예금주:배미지 www.핫나경.kr